

광주 경제계, 산재 예방 힘 모은다

광주경총, 회원사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법적 위험 최소화 등 교육 현대차·기아, 협력사 200여명 참석 안전문화 확산 ‘안전동행 세미나’

광주지역 경제계가 중대 산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산재를 막기 위한 세미나와 함께 산재 발생 시 법 위험을 최소화하는 교육 등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회원사 인사·노무·안전관리 책임자,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연다. 광주경총은 이번 설명회가 회원사의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이두형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명)가 나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대응 실무’

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 노무사는 삼성전자, 한전 MCS 등 다수 기업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 실무 강의를 진행한 전문가다. 이번 특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절차, 재해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절차, 보상·사후관리 등 실무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기아도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협력사 대상 자동차 산업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2025 현대차·기아 협력사 안전 동행 세미나’를 연다. 국내 최초로 1차 부품협력사는 물론 광주·전남·전북의 현대차·기아 2·3차 부품 협력사와 통합 구매 협력사 등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공급망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경영자

가 알아야 할 사고와 개선 사례,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안전을 책임지는 협력사 대표자의 ‘안전인식’을 강화한다. 또 안전 모니터링 카메라, 지게차·크레인 센서, 충돌 보호 에어백 자켓 등 협력사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장치를 선보인다. 세미나는 지난 15일 안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대구, 광주, 청주, 경주 등 자동차 산업 협력사가 모인 거점을 중심으로 총 1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협력사 안전 설비 구매 비용으로 90여억원을 사용하는 등 협력사 안전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협력사의 안전은 자동차 산업 지속의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안전 동행 문화가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분기 가계 여유자금 42조 급감…“소득 줄고 주택 구매 늘어”

1분기 92.9조→2분기 51.3조

작년 2분기 이후 최대 폭 감소

올해 2분기 소득이 줄고 아파트 등 주택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유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한 분기 만에 40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윌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의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 자금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도 76조9000억원으로, 1분기(101조2000억원)보다 25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000억원, 자본증권과 투자펀드가 11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가계가 2분기 조달한 자금은 25조6000억원으

로, 1분기(8조2000억원)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이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8분기 만이다. 김 팀장은 지난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 기대보다 높은 강도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1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콘텐츠 기업 ‘비에스’ ‘AI폰 아리랑’ IP 공동사업 중국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CLE)’에 참가한 광주 지역 콘텐츠 기업 ㈜비에스가 중국의 YUNLEI CULTURE와 웹툰 ‘AI폰 아리랑’의 저작권산권(IP)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폰 아리랑’의 중국 웹툰 플랫폼 연재, 현지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CLE는 전 세계 완구·유아·소비재 바이어가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B2B(기업 간) 라이선싱 전문 전시회로, GICON은 지역 콘텐츠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IP 홍보 지원을 목표로, CLE에 참여해 광주 공동관을 운영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의 유명한 콘텐츠 IP가 GICON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 노무사는 삼성전자, 한전 MCS 등 다수 기업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

가 알아야 할 사고와 개선 사례,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안전을 책임지는 협력사 대표자의 ‘안전인식’을 강화한다.

KDI “건설업 위축·소비부진 완화” 평가 유지

“생산증가세 낮고 고용 둔화”

건설업 불황으로 생산 증가세는 약하지만, 소비 부진은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국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전산업의

생산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8월 건설업 생산은 작년보다 17.9% 줄면서 전달(-14.0%)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8월 전산업 생산도 0.3% 감소 전환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도 16만6000명으로 전달(17만1000명)보다 축소됐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13만2000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

KDI는 승용차 소매판매의 높은 증가세는 긍정적 요인으로 봤다. 8월 승용차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13.6% 늘어 전달(12.9%)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생산도 크게 늘면서 제조업 재고율 하락(101.8→100.7%), 평균가동률 상승(72.5→74.7%) 등을 견인했다고 KDI는 설명했다. 승용차 외 소매판매도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재점화, 높은 대미 관세 등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는 경기 하방위험으로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견기업 2분기 성장·수익성 모두 하락

매출 증가율 0%대까지 밀려나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분기 매출 증가율이 0%대까지 하락하고 성장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향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장 중견기업 992사의 재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이 0.9%로 작년보다 2.8%포인트

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성장성 지표로 분류되는 총자산 증가율도 2.1%로 작년보다 4.4%p 하락했다. 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작년 2분기 3.7%를 기록하고 나서 올해 1분기 1.3%까지 꾸준히 하락했는데 이번에 0%대까지 주저앉았다. 올해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눠 보면, 제조업의 경우 1.4%를 기록했지만 비제조업은 -0.2%로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도 동반 하락했다. 올해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2%로 작년보다 0.1%p 줄었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거래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도 작년보다 2.1%p 낮아진 6.1%로 나타났다. 상장 중견기업의 부채비율은 65.4%로 작년 동기보다 1.1%p 감소했지만, 차입금 의존도는 13.4%로 0.1%p 증가했다. 이호준 중견견 상근부회장은 “전향적 금융 지원을 통해 비제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비즈인사이트와 업무 제휴 협약

상품·서비스 개발, 공동 마케팅

광주은행은 “지난 15일 라이프케어 전문기업 ‘비즈인사이트’와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양사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금융과 라이프케어를 결합한 전용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행장과 김상수 비즈인사이트 대표가 참석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양사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고 고객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상품·서비스 개발,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변미경 부행장은 “이번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비자원 “일부 핸드형 피부관리기 과장광고”

“중국산 1개 제품 피부부종 우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핸드형 피부관리 기기 중에서 한 중국산 제품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드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 일부 모드에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로, ‘데일리 케어’ 모드 작동시 EMS(전기근육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 주파수가 434만8천Hz(헤르츠)까지 높아져 사용 중 뜨거움 또는 통증을 느끼는 등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제품의 판매원은 (주)케어클, 제조원은 중국 ‘Shenzhen Siken 3d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다. 나머지 조사 대상 기기들의 주파수는 89~105만2000Hz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기는 모두 광생

물학적 안전성 면제그룹(위험그룹 0)에 해당해 안전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기준 표면온도 43℃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펄세이 뉴소닉 마사지기(40℃),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38℃), 프라엘 멀티코어(40℃) 등의 제품은 표면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위드웰 2세대 갈바닉 마사지기기의 경우 권장 사용 시간(1~10분) 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다른 제품과 달리 권장 사용시간을 초과한 20분간 작동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0개 중 7개 제품에서 주름 개선, 세포 재생, 신진대사 촉진,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했으며 일부 제품은 사용 설명서에 제품 정보 및 이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핸드형 피부관리기와 관련해 “제품 사용 전 정해진 사용 방법, 권장 사용주기를 확인하고 사용 부위가 붉어지거나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취준생 10명 중 8명 “일 경험 기회 부족”

회사 선택기준 1위는 임금수준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은 일 경험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20~34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7%가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을 꼽았다. ‘일자리 정보 부족’이 45.3%로 뒤이었고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30.8%), ‘학점·외국어 점수 취득의 어려움’(19.6%) 순이었다.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로는 ‘인턴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42.8%)이 꼽혔다. 이어 ‘취업 관련 지원금 또는 장학 제도’(20.7%), ‘취업포털·온라인 플랫폼 등의 취업 관

련 정보’(20.0%) 순이었다. 경총은 “미취업 청년들이 직무 관련 일경험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업무를 경험하거나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취업 회사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으로는 ‘임금 수준’(51.5%), ‘워라벨 등 근무 환경’(47.4%), ‘직무 적합성’(39.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임금 수준(54.6%), 여성은 근무 환경(50.8%)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 청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선 응답자 70.8%가 ‘신규채용 규모 감소’라고 답했다. ‘신규채용 규모에 영향이 없을 것’은 15.5%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금융당국, 임원 변경 신고 수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5위 거래소인 고팍스를 품게 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바이낸스는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이후 고팍스는 이후 바이낸스의 임원 등재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2년 넘게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별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없으나 대표·

임원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변경 신고 수리에 따라 바이낸스가 약속해온 고팍스에 피해 대금 지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748.37	(+91.09)
▲ 코스닥	865.41	(+0.69)
▲ 금리(국고채 3년)	2.569	(+0.049)
↓ 환율(US D) (오후 4시 49분 기준)	1416.50	(-4.80)